

周邊還境與件

休戰當事者 會談의 可能性 및
展開樣相 豫測

판 용

리 파)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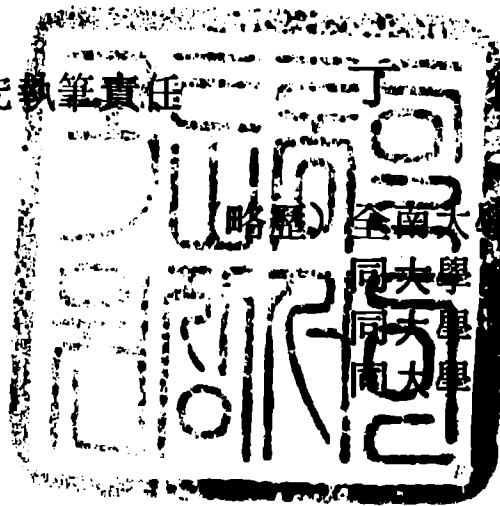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周邊環境與件

休戰當事者會談의 可能性과 展開樣相豫測

研究執筆責任

丁 得 圭



(略歷) 全南大學校 大學院卒 (1957)
同大學 政治學 博士學位 (1975)
同大學 政治學教授 (1974)
同大學 文理大學長 (現在)

刊行責任

申 相 翊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I. 序 論	3
II. 休戰当事者會議 提議의 背景	6
III. 当事者會談과 南北相互不可侵協定	13
IV. 休戰当事者會議의 可能性 診斷	19
V. 北韓의 当事者會談 忌避理由와 中共의 立場	25
VI. 北韓과 中蘇 三角關係	31
VII. 結 論	38

I . 序 論

金日成集團에 의한 1950年 6月 25日의 南侵挑発은 이 民族에게 더없는 悲劇을 強要하고 말았다. 3年동안의 戰鬪에서 犧牲된 數十萬의 人命과 불타고 破壤된 數많은 財産被害는 且置하고라도 同族相殘이 날고온 悲劇的 傷痕은 戰爭이 멈춘지 20余年이 지난 오늘까지도 南北韓間의 敵對感과 증오, 그리고 不信感을 誘發하는 원천적인 要因으로 作用되고 있다. 戰爭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境遇 當事國 相互間의 合意에 依해 文書로 約定되는 것이 停戰 或은 休戰協定이라 할 수 있는데 이 休戰이 곧 平和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戰爭遂行過程에서 勢가 不利한 側에서 停戰이나 休戰을 要求하는 것이 一般的인 現象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休戰이 다음의 攻堅을 위해, 有利한 與件을 造成하는 그야말로 또다른 戰爭을 準備하도록 하는 口實이 될 수도 있다는 點에서 休戰은 不安한 形式이며, 그리고 休戰當事國의 一方에 依하여 背信되어 또다른 戰爭이 발발되는 事例는 越南戰爭이나 中東戰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일이었다. 그러므로 休戰이라고 하는 利點을 가장 効率的으로 잘 活用할 수 있는 者는 國際法이나 道義, 國際慣行 등을 거침없이 無視하고 外面할 수 있는 無賴漢일 수 밖에 없다.

蘇聯의 UN大使 마리크의 提案에 依해 韓國戰爭의 休戰提議가

있었을 때 戰爭에 시달리면서도 우리 政府는 共產軍과의 休戰을 斷乎히 反對했고 우리 國民들은 休戰決死反對라고 외치면서 쫓기렸지만 1953年 7月 27日 「國際聯合軍 總司令官을 一方으로 하고 北傀軍 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韓國軍事停戰에 關한 協定」이라는 所謂 休戰協定이 直接的인 戰鬪當事國인 韓國代表가 參加하지 않은 가운데 UN軍總司令官 Mark W. Clark 將軍과 中共軍司令員 彭 德懷, 北傀軍 最高司令官 金 日成 間에 署名되고 同日 22時를 期해 發効되었던 것이다.

休戰協定이 成立된 以來 韓半島 情勢는 平和定着을 위한 休戰協定の 履行狀態라 하기보다는 緊張感을 高潮하고 北韓의 對南挑發을 激化시켰던 不安의 繼續이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 北韓共產主義者들은 四大軍事路線으로 軍備增強에 狂奔했고 數 많은 休戰協定の 違反行爲와 最近 非武裝地帶에서 發見된 南侵 땅굴과 8.18 板門店事件은 그들의 好戰성과 非人道的 蠻行을 立證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제 休戰協定の 違反이란 次元을 넘어 이 땅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戰爭을 如何히 防止하느냐 하는 問題가 死活의 問題(Vital issue)로 提起되고 있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南侵執念이 제아무리 狂信的이라 할지라도 이 民族에게 또다른 同族相殘의 悲劇만은 絶對로 強要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平和的 祖國統一의 民族的 課業을 위해 最善의 努力을 傾注해야 하는 것이다. 이 民族의 發展과 繁榮의 基盤이 바로 平和

統一에 달려 있다는 엄연한 事實을 再確認하면서 南北對話의 再開를 促求하고 이 對話를 通해서 平和定着에 接近하는 南北韓間의 努力이 보다 活潑하게 展開되기를 念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南北對決을 回避할 수 있는 方法이 果然 무엇인가? 작게는 緊張緩和를 위한 南北間의 진지하고도 不斷한 努力과 韓半島에 있어서 南北韓의 力學的 均衡關係의 維持이며, 크게는 國際政治的 次元에서 周辺 強大國들의 平和保障裝置를 法的으로 制度化하는 方法등을 考慮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韓國에 緊密한 利害關係를 갖고 있는 美國 政府의 對韓政策基調, 역시 韓半島의 긴장완화와 平和定着의 誘導 및 그 發展에 두고 있음은 다시 말할 余地가 없다. 70年代의 流動的인 國際情勢變化와 韓半島의 南北關係를 감안하여 昨年 9月 Henry A. Kissinger 美國務長官은 韓半島休戰當事國會議를 提議한 바 있으며 이를 보다 現實的으로 具體化하여 今年 7月 休戰當事者 三段階擴大會議를 提議한 바 있는데 이 提議는 韓國問題를 보다 本質的이고도 항구적 解決을 위한 現實的인 提案으로 그 妥當性이 認定되고 있는 것이다.

II . 當事者會議 提議의 背景

休戰當事者會議의 提議는 1975年 9月 22日 Kissinger 美國 國務長官이 第30次 UN 總會演說을 通해 韓國, 美國, 中共, 北韓 등 韓國의 休戰維持에 直接 關聯된 國家들 間에 이른바 韓半島 休戰 當事者會議를 提議한 데서 發端했다. 1973年 以後 Kissinger 國務長官은 韓國問題에 關해 關聯 當事國들의 < 조용한 幕後外交 > 를 主張해 왔는데 그동안 韓半島에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는 國家들의 米묘한 立場으로 별다른 進展이 없자 韓半島問題에 對한 積極的인 解決方案의 모색을 表明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現在 韓國休戰協定の 當事國은 1953年 7月の 休戰協定에 依해 美國과 北韓, 그리고 中共으로 되어있으나 Kissinger 長官이 意圖하는 休戰當事者會議는 南北韓과 美國, 그리고 中共間的 4個國會談을 示唆하고 있는 것이며 同時에 境遇에 따라서는 根本的인 方案의 協議를 爲해 蘇聯과 日本을 包含한 6個國 擴大會議의 開催 可能性도 檢討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ssinger 長官은 이날 提議를 通해 中共과 蘇聯에 對해서는 韓國에 對한 關係改善을 促求하면서 이에 對한 相應措置로 美國도 北韓과의 關係改善 余地가 있음을 暗示했다.

이러한 提議가 나오게 된 背景은 그동안 美-蘇, 美-中共의 接觸과 米당트의 趨勢에 影響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Kissinger

國務長官의 UN總會演說에서 감지할 수 있는 美國政府의 韓半島에
대한 課題와 立場은 韓半島의 休戰維持와 緊張緩和를 위해서는 相
互兵力水準의 制限問題도 4個國會議에서 論議될 수 있을 것이라고
傳했다. 그동안 韓半島의 情勢는 71年의 南北對話의 進行과 美
· 中共間의 關係改善 그리고 美· 蘇間의 制限的 協力關係의 發展등
으로 緊張이 緩和될 듯한 기미가 보였으나 73年 北韓의 一方的
인 南北對話拒否로 對話의 차별마저 斷切된 狀態에 있으며 南侵野
欲의 確固不動한 証拠物인 땅굴은 그 軍事的인 重要性은 且置하고
타도 政治的인 意味가 크다. 왜냐하면 땅굴은 可能한 모든 手段
을 動員하여 南侵하려는 執念과 狂信을 立証하기 때문이다.²⁾

Kissinger 國務長官은 昨年 UN總會의 演說에 이어 今年 7月
22日 시애틀市の 로터리 클럽 (Rotary Club) 과 商工會議所
(Chamber of Commerce) 合同集會에서 行한 <美國의 아시아 政
策>이란 主題下의 演說에서 韓半島問題 解決에 關해 「北韓과 그
友邦 國家들은 23年前에 韓國戰爭을 終決케 하였고 오늘날 平和維
持에 도움을 주고 있는 組織的인 休戰協定措置를 바꾸기 위해 所
謂 非同盟國會議과 UN에서 一大外交活動을 展開해 왔다. 그들은
北韓 및 中共과 같이 休戰協定에 署名한 UN軍司令部를 無條件
解体하도록 要求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UN軍司令部가

註1 : 金惠沢, 國際政治속의 韓國, 汎文社, 1976, p 97.

解体한다면 休戰協定 自体가 存在하지 않게 된다고까지 主張하고 있다. 同時에 北韓은 韓國으로부터 美軍은 撤収하라고 要求하고 있다. 北韓은 韓半島의 平和와 安保問題들을 韓半島人口의 3分之2를 차지하고 있는 大韓民國을 際外하고 오로지 美國과의 雙務會議에서 討議하자고 提案하고 있다. 北韓의 提案은 平和를 增進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盟邦을 孤立시키고 美國의 一方的인 撤収를 促進시켜 現存하는 合法的인 措置를 解消해 버리려는 無定形의 一般的 協商으로 끌고 가려는 속셈인 것이다.

美國은 그러한 提案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다. 平和를 真正으로 信奉하는 어느 國家도 그런 提案을 支持해서는 안된다. 순수한 美同盟에 關心이 있는 어떤 國家도 그러한 一方的인 接近方式에 편들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現 休戰協定の 法的 土台를 論할 用意在 있다. 우리는 또한 現 休戰을 보다 永久的인 措置로 代置할 用意도 있다. 그러나 美國政府는 盟邦인 韓國의 生存에 關係되는 問題를 韓國의 等位에서 協商할 수 없으며 또 協商하지도 않을 것이다. 美國은 또한 当事者들로 하여금 平和를 維持케 하는 現存하는 唯一한 合法的 措置인 休戰協定の 完全性을 保存하기 위한 또는 새로운 恆久的인 法的 土台를 마련하는 아무런 새로운 措置도 取하지 않고서 UN軍司令部를 解体하는데 合意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美國은 一方的으로 그 軍隊를 撤収시킴으로써 安定과 協商의 希望을 沮害하지는 않을 것이다. 韓國에 對한

美國의 立場은 分明하다. 즉 첫째로, 우리는 南北間의 긴지한 論議의 再開를 促求한다. 둘째로, 北韓의 盟邦들이 南韓과의 關係를 改善할 用意를 갖출다면 오직 그 때에 가서만 우리도 北韓에 對해서 그와 비슷한 措置를 取할 用意를 갖출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UN이 南北韓의 궁극적인 統一에 妨害되지 않는 範圍에서 南北韓을 正式으로 加入시키자는 提案을 繼續 支持한다. 끝으로 우리는 休戰의 새로운 土臺를 協商하거나 그것을 모든 当事者가 受諾할 수 있는 어떤 形式의 보다 恆久的인 措置로 代치할 用意가 있다.

이러한 精神에 따라 昨年 9月 우리는 休戰協定을 保存하고 韓國에서의 緊張을 緩和하는 方案을 討議하기 위한 南北韓 및 美國, 中共 등을 包含하는 当事者會議을 提議한 바 있다. 우리는 그와같은 會議에서 보다 根本적이고 持統적인 協約을 協商하기 위한 擴大會議의 可能性을 모색할 用意가 있다고 強調했다. 오늘 포드大統領은 나에게 다시 한번 그러한 會議을 提議하도록 당부했다. 具體적으로 말해 美國政府는 오는 UN總會期間中에 南韓, 北韓 中華人民共和國과 會談할 用意가 있다. 우리는 뉴욕을 會談場所로 提議한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受諾possible한 다른 場所도 考慮할 用意가 있다. 우리는 節次 및 場所問題에 關하여 즉시 討議를 開始할 用意가 있다. 그같은 會談은 만일 雙方이 合意한다면 休戰에 對해 새로운 法的 根拠를 賦與할 것이다. 그것은 보다

永久的인 協約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아시아 全域에서 緊張을 緩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当事國들에게 긍정적인 反應을 보이도록 促求한다.

韓半島의 平和에 真正으로 關心을 가진 어느 國家도 現存하는 情勢를 改善하기 위한 方案에 關해서 相對國들과 자리를 같이 하며 回答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²⁾라고 主張했다.

이상의 演說 內容을 要約해 보면,

첫째, 今年 가을 UN 總會期間中 뉴욕에서 美國, 中共, 南北韓의 4者會談을 開催.

둘째, 美國, 中共, 蘇聯의 南北韓 交叉承認.

셋째, 南北韓 UN 同時加入

넷째, 南北對話 再開 促求 등으로 集約할 수 있는데, 特히 4者會談은,

첫째로, 当事者들이 合意한다면 1953年 韓國의 休戰協定에 對한 새로운 法的 體系를 마련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韓國問題에 對한 보다 根本적이고 恆久的인 協定을 마련하기 위한 擴大會談 開催 方案등을 討議할 수 있을 것이라는 點에서 問題解決에 具體的이라고도 現實적인 接近을 하고 있다고

註2: The Secretary of state, Bureau of public Affairs
office of Media Service, July, 22, 1976. Seattle,
Washington, pp 5~6.

그러나 Kissinger 長官의 이날 밝힌 4 個項의 美國의 提議에
대한 共産側의 反應은 이 構想의 實現 可能性 問題에 對해서 速
斷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UN에서는 거의 年例行事처럼 韓國問題를 다루어 왔지만
討議는 非生産的인 舌戰의 主題가 되었고 더구나 75 年의 UN 總會
에서 韓半島問題 解決에 關한 相反된 兩側의 決議案이 모두 通過
해 버린 해괴한 異變은 더 以上 UN이 韓國問題解決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限界性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동안 여러가지 情勢가 變化한 탓도 있으나 엄청난 國力의 浪費
가 뒤따르던, 對UN 「消耗外交」의 止揚은 今年의 南北韓 UN 對決의
忌避와 撤回에서도 実感할 수 있었다. 어떻게든 問題解決의 關鍵은
南北當事者들의 直接交渉과 協商에 달려있는 것이며 美國政府의 意圖
自体가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Edwin Black 이 이른바 韓國의 「잠정적 평화상태」야말로 本質的
으로 허약한 脆弱性을 드러내고 있다³⁾고指摘한 바와 같이 不安한
休戰協定을 보다 安全하고 永久的인 平和保障裝置로 補完하고자 하는
點에서 우리는 休戰當事國會議의 當爲性과 合理性을 強調하는 것이다.

우리 政府에서도 韓國問題의 實質的 解決을 위해 南北

註 3 : Edwin Black, "Korea's interim peace", Asia affairs,
頁 (Sep. - Oct.) 1975, p 7.

当事者の 直接對話와 協議가 있어야 한다는 基本 立場에서 이 提議를 즉각 支持하고 北韓에 會議開催를 促求한 바 있다.

그러나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이 提議를 拒否했고 지금까지 南北 對話의 再開를 外面한 채 오히려 平和協定을 云云하면서 美國과의 單獨會談을 提議해 오고 있는데, 그 底意는 무엇보다도 韓國의 國際的 孤立과 駐韓美軍의 一方的 撤収促求, 그리고 既存의 法的 協定の 無効化를 노리고 있음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對해 日本의 「요미우리」新聞은 韓半島一方의 当事者인 南韓을 除外하려는 北韓의 提案은 非現實的이며 그들이 곧잘 主張하는 自主性을 잃은 矛盾덩어리라고 批判한 바 있다.⁴⁾

註4: 東亞日報, 1975. 9. 26 字.

Ⅲ . 當事者會談과 南北相互不可侵協定

戰爭을 抑制하여 平和的 統一 課業을 達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民族의 至上目標가 되고 있으므로 戰爭抑制라는 「平和」와, 分斷의 解消라는 「統一」이 서로 排他的인 性質의 것이 아니라 相互 補完的 關聯性을 더고 있으며 戰爭抑制라는 平和達成의 政策 目標는 곧 平和統一 達成의 政策目標의 母胎이다. 우리 政府가 「先平和, 後統一」을 政策基調⁵⁾로 平和定着의 土전을 굳혀가고 있거니와 朴 正熙 大統領은 1973年 6月 23日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을 發表한데 이어 1974年 1月, 北韓에 對해 南北相互不可侵協定 締結을 正式으로 提案하였다.

그 主된 內容인즉,

첫째, 南北韓은 어떠한 狀況下에서도 相互 侵略하지 않을 것을 滿天下에 公約한다.

둘째, 雙方은 相互 內政에 干渉하지 아니한다.

셋째,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를 위하여 現在의 休戰協定은 계속 그 効力을 維持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南北韓 間의 相互不可侵協定の 提議는 1970年의

註5 : 朴 正熙大統領 光復節 第29周年 慶祝辭(1974. 8. 15).

8.15 宣言과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에 立脚한 것으로서 韓半島에서 造成되고 있는 南北間의 緊張狀態를 緩和하여 平和統一의 一次 課業이라 할 수 있는 平和定着을 現實적으로 具現하고자 하는 提案인 것이다. 韓半島의 休戰體制는 20 余年의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停戰 以上の 아무런 進展도 보지 못한 채 오히려 好戰的인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民族解放」이니 南조선혁명의 遂行을 위한 「統一戰線」의 形成이라는 口號아래 對南赤化戰略을 露骨化하고 있어서 한반도의 情勢는 不安과 緊張感만이 더 加重되고 있는 實情에 있다. 非美國化政策으로 알려진 너슨 獨트린宣言 以後, 아시아로부터의 美軍 撤収趨勢와 인도차이나의 共產化로 고무된 北韓의 金日成은 4大軍事路線에 따라 만반의 戰爭準備가 完了되었다고 豪言하면서 1975年 4月 18日 돌연 北京을 訪問하여 中共 國務院이 主催하는 만찬 연설을 통해 「南朝鮮에서 革命이 일어나면 우리는 같은 民族의 立場에서 座視하지 않을 것」이며, 「戰爭으로 우리가 잃는 것은 軍事分界線이며, 얻는 것은 祖國統一」이라 했다⁶⁾.

또 金日成은 1976年 新年辭에서 「南朝鮮 人民들은 올해에도 祖國統一과 革命의 勝利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야 하겠으며 북반부 人民들은 남조선 人民들의 愛國鬪爭을 모든 힘을 다하여

註6 : 統一政策 2卷 2号, 國土統一院,

1976. 7. pp.51~52.

적극 성원해야 한다」⁷⁾고 선동한 바 있다. 또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오히려 「南韓이 美帝國主義와 結托하여 北侵해온다」는 등 허무맹랑한 말로 北韓 住民을 현혹시키면서 우리가 提議한 南北不可侵協定の 締結을 拒否함은 勿論, 오히려 美國을 相對로,

- ① 武力增強과 軍備競爭의 中止.
- ② 雙方兵力을 各其 10 萬名 以下로 감축.
- ③ 美軍과 駐韓外國軍의 全面撤収.
- ④ 海外로부터의 武器와 裝備 導入의 中止

등을 內容으로 한 所謂 그들의 「平和協定」을 代案으로 내놓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 만약 南北間에 戰爭이 벌어지면 이 民族은 勝負없는 戰爭으로 悲慘하게 된다는 事實을 金 日成 自身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選擇해야 할 길은 明白한 것이다. 게임理論(Game theory)에서 兩者가 協同(Cooperate)하면 살고, 背信(defect)하면 다 죽는 “어리석은 사람”(sucker)일 수 밖에 없다. 이 境遇 合理的인 政治家라면 葛藤(Conflict)보다 協同(Cooperation)을 選擇하는 것이 賢明하다. 그러나, 南北間의 對決이 「game of chicken」을 닮은 경우는 強硬路線(Hard line)보다

註7 : 内外通信 221号, 1976年1月1日, 金 日成의 新年辭,
('76. 1. 5)

隱健路線 (Soft line) 政策이 보다 合理的인 解決策임⁸⁾에도 不拘하고 金 日成은 好戰性を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北한의 어떠한 挑発과 反應에도 韓半島의 平和共存을 實現하기 위한 知慧로운 措置와 努力을 다함으로써 北한 공산주의자들의 無謀한 武力 南侵을 抑制하는 抑制機能과 高潮된 緊張을 緩和하기 위한 和解接近의 機能을 效果的으로 發揮케 하여 마침내 北한 스스로가 마지 못해서 끌려오는 狀況까지 몰고 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韓半島에 있어서 戰爭을 防止해야만 한다는 當爲論的 要請 앞에 먼저 戰爭을 除去하는 法을 制定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平和를 교란하는 事實을 把握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⁹⁾ 南北韓間의 均衡問題는 現像을 維持한다는 点에서 重要な 意味를 갖는 問題인 바 Wright 教授는 「靜的 意味에서 均衡이란 相互 接觸하는 獨立해 있는 政府의 共存을 說明하는 條件이며, 動的 意味에서는 그의 條件을 維持하려고 政府에 依해 採用되는 政策이다」¹⁰⁾

註8 : Karl W. Deutsc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p.119 ~ 120.

註9 : 村房夫, 平和と その抑制, 前野書房, 東京, p.2.

註10 : Q. Wright: A study of War I, p.743

라고指摘했다. 이와같이 南北韓 間의 均衡維持는 한반도의 戰爭防止에 重要な 機能을 갖는 것임에 틀림없다.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相互不可侵協定을 맺는 것이 果然 戰爭防止를 위해 完全한 裝置가 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우리 국민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共產主義者들의 상투적인 術策과 所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또 金日成이 무엇을 企圖하고 있는지를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南北相互不可侵協定이 軍事的인 意味만이 아니라 政治, 法律, 道德, 輿論, 心理 등의 側面에서도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挑戔을 抑制하는 效果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처한 이러한 어프로치는 必要하다고 보는 것이다.

7. 4 南北共同聲明과 6. 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이 모두 平和共存의 政治哲學에 바탕을 둔 現實的이고 建設的인 原則이라할 수 있는데 南北韓의 共存을 위해서는

첫째, 南北이 서로 相對를 認定하고,

둘째, 南北 相互間에 戰爭을 하지 않겠다는 意思가 表明되어야 하고,

셋째, 武力으로 相對方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先行條件이 要求되는 것이다.

이러한 內容을 集約한 提案(Proposal)이 바로 南北相互不可侵

協定이다.

朴正熙大統領은 1970年 8.15 宣言에서 이미北韓当局에 대하여 「武装共匪의 南派 등 모든 戰爭挑発行爲를 즉각 中止하고 所謂 武力에 依한 赤化統一이나 暴力革命에 依한 大韓民國의 전복을 企圖해 온 從前의 態度를 完全히 포기하겠다는 點을 明白하게 内外에 宣言하고 또한 이를 行動으로 実証해야 한다」고 促求한 바 있다. 또한 7.4 南北共同聲明에서도 크고 작은 것을 莫論하고 武装挑発을 하지 않으며 不意의 軍事的 衝突事件을 防止하기 위한 積極的인 措置를 取하기로 合意했다. 뿐만 아니라 6.23 宣言의 第2項에서 「韓半島의 平和는 반드시 維持되어야 하며, 南北韓은 서로 干渉을 하지 않으며 侵略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宣言했다. 이런 點에서 南北相互不可侵協定은 UN 憲章의 精神에도 一致된 提議인 것이다.

IV. 休戰當事者會議의 可能性 診斷

休戰當事者會議을 提議한 美國 政府側의 意圖는 于先 韓半島의 現狀을 그대로 維持해야· 하겠다는 것이며 이러한 現狀維持는 現存하는 緊張을 緩和하면서 漸次的으로 南北韓關係를 正常化함으로써 韓半島問題를 根本적으로 解決하고자 하는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立場은 韓國 政府가 數次에 걸쳐 밝힌 意圖와도 附合되는 것임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다.

1975年 9月, 第30次 UN總會 會期中 美國의 提議로 西方側 決議案이 提出되었는데 이 決議案에서 實際로 1976年 1月 1日을 期해 UN軍司令部를 自進 解体한다는 것이었다. 이 決議案은 直接的으로 關聯된 國家들 즉 韓國, 美國, 北韓 그리고 中共 등 4個 當事國이 韓國休戰의 存続을 위한 代案을 마련하기 위한 協商에 參加한다는 것을 前提로 한 것이다. 11)

그러나, 이러한 提議가 現實적으로 實現되기 위해서는 一方의 希望과 提案만으로는 아무런 意味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側의 提議에 對해 北韓 側이 納得하고 이에 應하지 않는 限 어떠한 結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最小限 相對方의 意見에 귀를 기울이면서 誠意있는 協商의 姿勢로 나오지 않는 限 問題

註 11 : 金 惠 沢, 前 掲 書 pp. 19~20.

解決의 接近은 不可能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第1
次的으로 南北當事者會談을 豫備會談으로 해서 原則問題
에 對한 相互 意見을 接近시키도록 하고 이 合意의 바탕 위
에서 關係國會議을 段階的으로 擴大해 가도록 構想하고 있다.

韓國問題解決에 關한 關係國會議의 開催 提議는 韓半島問題가 周
邊國家들의 利害關係와 깊은 關聯을 갖고 있다는 國際的 性格을
말하는 것이며, 同時에 周邊強大國들이 南北韓의 事態發展에 적지
않은 影響力을 미칠 수 있다는 事實을 示唆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意味에서는 北韓의 條件없는 拒否反應을 制
約하면서 우리側 主張의 正當性과 合理性을 提高하고자 하는 同時
에 萬諾 南北韓 間에 어떤 妥協이 成功되었을 경우에 이를 確認
하고 保障하는 保證人으로서도 關係國會議는 그런대로 現實的 意義
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源泉的으로 國際性을 지닌 問題였고 또 이러한
次元에서 問題解決의 方式을 찾지 않는 限 어떠한 실마리도 찾을
수가 없다는 點에서 보면 어떤 側面에서는 南北當事者會談보다는
오히려 自然스럽고 그 實現可能性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다.

北韓側은 상투적으로 韓國問題의 解決은 自主的 原則에서 解決되
어야 한다고 主張해오고 있으나, 그들이 말하는 自主的이란 어떤
意味와 底意가 담긴 概念인지 明確하지가 않다. 北韓의 公산주의
자들이 즐겨 쓰는 自主란 概念은 多分히 對南戰略의 遂行을 위한

戰術的 意味을 가진 것으로서 그들은 駐韓美軍의 撤収와 UN 軍司令部의 解体를 겨냥하고 自主的 原則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弁名할 수 없는 明白한 自己論理의 矛盾은 그들이 韓半島의 문제 해결은 自主的으로 해야한다고 내세우면서도 休戰當事者問題에 關한 限 實質的인 相對인 韓國을 제쳐놓고 美國만을 相對하여 協議하겠다고 主張하고 있는 點이다.

勿論 여기에도 그들이 노리는 計略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서 對內的으로는 北韓住民들에게 北韓을 威脅하는 것은 美帝國主義者라는 것을 선동하고 對外的으로는 美國을 相對로 그들의 國際的 地位와 威信을 높이면서 相對的으로 韓國을 孤立化시켜 보려는 效果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問題는 이러한 北韓 共產主義者를 相對로 어떠한 協商과 合意를 試圖한들 韓半島의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데 있다.

「約束은 지켜야 한다」는 것은 洋의 東西를 不問하고 當然한 個人 倫理였을 뿐만 아니라 現代 國際社會에서도 존중되어야 할 國家 倫理임은 再言을 要하지 않는다. 信賴와 誠實이 隨伴되는 約束이나 協定만이 實効的인 意味를 갖는 것이지 背信하고 相對方의 虛를 노리는 約束이나 協約은 問題解決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例를 들면 精神薄弱者나 破産宣告者(Bankrupt)에게 金錢去來를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北韓의 金日成集團은 이미 國際社會에서 信用이 墜落된 無賴한 政權임은 이미 公知된 事實이지만 더구나 金日成의 正체를 잘 알고, 그의 不法行爲를 經驗한 우리 國民의 大多數는 金日成集團과 協商을 한다고 하는 것에 對하여 懷疑的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事實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冷戰의 論理는 韓半島의 問題解決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北韓과의 對話도 必要없다 協商도 意味가 없다고 하면 結論은 明白하다. 結局 武力에 依해 問題解決을 求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보면 事態는 너무 심각하고 悲觀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戰爭은 반드시 避해야 한다는 大命題야말로 우리의 至上課業인 同時에 우리가 追求해야 할 最善의 目標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現實的인 어려움을 克服하고 南北對話를 再開하여 高潮된 韓半島의 緊張狀態를 平和共存의 狀態로 轉換해야 하는 것이다.

對話없이 緊張의 解消는 期待할 수 없는 것이므로 連帶保證下에서 相互不可侵協定을 協商하고자 하는 것이다. 國際情勢의 變化와 内部的 狀況變化에 따라 影響을 받게 되는 것은 南北韓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要因에서 볼 때, 北韓 當局이 우리의 提議에 呼應해오는 境遇는 分明히 自体内的 必要에 依해서라기 보다는 國際環境에 依해 움직일 可能性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1971年 南北對話의

實現過程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對話가 成功될 수 있었던 要因은 에땅트라고 하는 國際情勢의 全般的 趨勢에서 더 큰 影響을 받았을 것으로 풀이되며 結果論的으로는 이 무렵 北韓의 이러한 態度變化는 世界와 美國 輿論에 影響을 주고 膠着狀態에 있는 韓半島情勢를 그들에게 有利한 方向으로 轉換시키기 위한 韓半島 戰略的인 態度變化에 不過한 것이라고¹²⁾ 보는 見解도 있다.

UN 消息通에 따르면 相當한 期間동안 美國의 對中共 封鎖政策 (Containment Policy)에 依해 높고 두껍게 쌓아 올린 美, 中共 間의 장벽을 트는데 「루마니아」가 重要한 役割을 담당했다고 한다. 이러한 事實은 韓半島問題解決에 있어서도 그와 비슷한 役割—友好的인, 그러나 說得力있는 忠告—이 奏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演說될 수 있는 것이다.

1975年 9月 25日 日本의 요미우리新聞은 「韓半島問題解決은 키신저가 提案한 方向으로」라는 題下의 社說에서 키신저長官의 韓半島問題解決을 위한 南北韓, 美國, 中共 등 4者會談의 開催提議를 支持한다¹³⁾고 밝혔다. 또 美國政府 消息通은 休戰當事國會議를 提議

註12 : Sheldon W. Simon: Asia Neutralism and U. S. Policy, Washington D. 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Research, 1975. p. 83.

註13 : 東亞日報, 1975. 9. 26 字

하면서 休戰協定の 直接当事國인 中共에게 三段階 韓半島 休戰當事者會談을 事前에 通告했고 中共은 이에 對해 支持를 約束한 바 있다고 示唆한 바 있다. 키신저長官은 UN 總會 基調演說에서 現在로서 4 者會談이 어렵다면 于先 美國과 中共이 읍서버 또는 顧問 役割로 參與하는 가운데 段階的 協商方式인 南北韓의 豫備會談을 열자고 促求했다.

이 關係國會談이 段階的으로 成功하여 擴大會議 段階로 發展하면 蘇聯과 日本은 기꺼이 會議에 參加하게 될 것으로 豫想된다. 이 提議에 關해 昨年 3 月 日本의 미끼首相의 「南北韓과 強大國間의 互惠的 關係正常化」라는 주장에서도 明白한 意思表明이 있었거니와 去年 9 月 小坂 外相은 訪美中에 키신저長官의 提議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南北韓의 交叉承認을 前提로 하는 4 強間의 協議에 이니셔티브를 行使하려는 積極적인 態度에서도 明白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蘇聯의 反應은 明白하게 示唆된 바는 아직 없으나 美國과 日本과의 關係를 考慮하여 當然히 利害當事國으로 參與하게 될 것을 希望할 것으로 分析된다.

V. 北韓의 當事者會議 忌避 理由와 中共의 立場

休戰當事者會議의 提議 目的은 단순한 軍事 目的과 効果에 만
局限하지 않는 多元的 意味를 갖는다. 短期的으로는 直面한 韓
半島의 不安한 休戰體制를 보다 安定性있는 恆久的 平和體制로
定着시키고 長期的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平和的 統一目標을
達成한다는 데 두고 있다. 이는 곧 平和的 祖國統一이라는 民
族의 當爲的 課業을 成就하는데 不可欠한 第1步인 것이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平和統一의 提案이 自己들이 特許받은 專
有物인양 겉으로는 철세없이 平和의 나팔을 불어대면서도 實際에
있어서는 韓半島의 平和를 威脅하고 破壞하는 갖가지 挑戔을 恣
行하는 自己否定的 矛盾性을 露呈하고 있다. 이 矛盾性이란 비
단 宣傳 目的을 위한 提案의 虛構性 뿐만 아니라 그들 體制의
硬直性과 好戰性에 立脚한 行態라고도 할 수 있다. 北韓은
1960年 4.19를 基點으로 對南平和功勞를 대대적으로 展開해 왔다.

同年 8.15 光復節 慶祝大會에서 金日成은 「過渡的 措置로서
南北朝鮮의 聯邦制」를 提議한 以來 10萬名 以上の 兵力 減縮
과 1962年 6月20日 「南北間의 武力不可侵條約」을 提議했고
1963年 9月 8日 다시 「南北協商, 美軍撤退, 不可侵條約, 10萬
以下の 減軍」등을 內容으로 한 提案을 했을 뿐만 아니라 1971
年 4月 12日 許談의 8項目 統一方案 속에서도 다시 되풀이
되었다.

1974年 8月 우리 政府에 依한 不可侵協定¹⁴⁾과 키신저長官의 1975年 9月의 休戰當事国会議 提議 등은 1948年 以來 北韓이 줄곧 主張해오던 平和統一提議와 本質적으로 相衝되는 內容이 아님 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平和定着을 爲한 韓國의 提案을 民族分斷을 永久化하는 것이라는 口實로 拒否하면서 오히려 美國을 相對로 한 平和條約을 締結하자고 主張했다.

南北不可侵協定 問題만 하더라도 北韓은 여러 차례의 平和統一案 가운데서 主張해온 內容인데 1955年 8.15 解放 10周年 紀念大會에서 金日成이 南北間 武力不行使協定の 締結을 提議한 以來, 1962年 6月 20日 北韓의 最高人民會議 第2期 11次會期에서 決議한 統一方案 속에서 南北間的 武力不可侵條約을 다시 提議했고 1963年 9月 8日과 12月 9日에도 同一한 內容의 提議를 되 풀이했거니와 또 1969年 10月 8日 第24次 UN總會에 提出한 그들의 備忘錄(memorandum)에서도 「南北間 平和協定」을 提議 했고 그 後 不可侵條約대신 平和條約으로 바꾸어 主張해오고 있다.

註14 : 朴 正熙大統領의 統一 三大基本原則中에서 明示된

- ①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위한 不可侵協定
- ② 南北間的 門戶開放과 多角的인 交流
- ③ 土着人口 比例에 依한 南北韓 自由選舉를 통한 統一

休戰當事者會議 問題에 있어서도 北韓은 1958年 3月 11日 所謂 그들의 最高人民會議 第1期 9次會議에서 「朝鮮의 統一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國際會議의 必要性을 認定」한 以來 同年 7月 12日 南 日의 對UN聲明에서도 「有關係國家의 會議」召集을 主張한 바 있고 1956年 4月 28日과 6月 2日, 7月 3日, 그리고 1957年 9月 20日 등 여러 차례에 걸쳐 有關係國會議을 提議해 왔을 뿐만 아니라 1969年 7月 21日 第21次 UN總회의 備忘錄 속에서 「南北代表를 包含하여 南北當局이 各各 指名하는 同數國 代表로 構成되는 朝鮮問題의 平和調整을 위한 關係國會議을 召集할 것」을 提議했고 1970年 6月 22日의 備忘錄에서도 統一을 爲한 有關係國會議가 提起되었다.

특히 1972年 7·4 南北共同聲明에서 外勢를 排除하고 自主적으로 統一한다는 原則의 合意下에 有關係國會議 代身 南北 直接協商이 始作된 것이다.

그러나 遺憾스럽게도 北韓은 一方的인 8.28 聲明으로 南北對話를 中斷시킨 以後 그들이 提議해온 有關係國會議와 本質적으로 類似한 우리側 休戰當事者會議의 提議를 拒否하고 있다. 이것은 形式論理上으로도 自己矛盾을 드러내는 것이며 同時에 지금까지 그들이 主張해온 平和提議의 虛構成을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北韓이 平和定着을 위한 提議를 拒否하는 理由는 都大體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첫째로는 對南武力赤化 統一의 路線을 維持하려는데 있으며, 둘째로는 南北韓의 平和共存과

이에 따른 後統 措置로서 이루어지는 南北交流에 依해 北韓의 體制가 다른 體制에로 轉換하게 될 可能性을 두려워 하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의 對南戰略은 根本적으로 武力赤化統一에 두고 展開해왔 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理念的으로 革命투쟁을 前提하고 있는 北韓의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혁명 目標을 達成하기 爲해 手段, 方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들의 戰略戰術에서도 統一戰線의 形成 乃至는 人民解放理論 등은 暴力革命을 第1의 信條로 삼고 있다. 北韓의 憲法 條文에 明示되어 있는 社會主義 革命이라든가 人民의 鬪爭이란 概念은 平和的 統合이나 平和的 變形 (Peaceful transformation) 을 否定하는 것이며, 特히 金日成의 퍼스내리티에서도 殘忍성과 好戰性을 엿볼 수 있다.

結局 그것은 平和的인 南北의 體制競爭에서 견딜 수 있는 自信이 없다는 데에서 起因한다. 이것은 北韓이 지닌 體制上의 硬直性에서 빛는 脆弱性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가 提議한 南北相互不可侵協定이 南北韓의 平和定着을 爲해 現實적으로 절실하고도 所望되는 提議임에도 不拘하고 北韓이 이를 拒否하는 理由는 8·28 聲明으로 오랫동안 뚝린 南北對話를 中斷한 理由와 一致하는 것이다.

한편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方案의 하나로 休戰協定의 直接當事者인 中共과 關係國會議를 開催하자는 것은 法理論的인 理由 以外에도 中共이 北韓에 미칠 수 있는 現實的 政治力量에 비추어 必要條件이나 할 수 있는데 中國이 韓半島에 對하여 갖는

利害關係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歴史的이고 本質적인 것이다. 따라서 中共政權이 樹立된 以後 韓半島에 對한 關心은 勿論이고 直接的으로 깊이 介入하게 된 것은 1950年의 韓國戰爭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다. 極東에 있어서 中共의 政策基調는 美國, 蘇聯, 日本 등에 依한 敵對國들의 集團化에 反對함에 있으나 美國과의 關係改善 以後 對美關係는 蘇聯에 依한 威脅意識 때문에 多少 緩和的인 行態를 보이는 듯하다.

어떻든 中共은 이 地域에 對한 列強의 支配에 反對해서 拒否反應을 보이고 있으며 이 地域에 對해 獨点的 勢力圈을 形成하는데 對抗할 것임에는 分明하다. 美國과 合意한 上海共同聲明에서도 蘇聯의 膨脹政策과 關聯하여 霸權政治에 싸기를 박았고 아울러 北한에 對해서도 親蘇的 立場으로 接近하거나 기우는 것은 許容하지 않으며 美國勢力 代身 日本 軍國主義가 韓半島에 進出하는 것에 對해서도 相當한 不安을 느끼게 될 것이려니와, 反面에 蘇聯 역시 北한이 中共의 影響力下에 들어가는 것을 反對하는 立場이고 보면 結局 韓半島는 4強의 現狀維持政策 (Policy of status quo) 에 依한 現狀의 固定化에 歸着하게 된다.

北한은 中蘇紛爭의 틈바구니 속에서 즐타기 外交를 조심스럽게 해오다가 60年 後半부터 對中共依存에 더 큰 比重을 두고 있으며 특히 對韓戰略에 있어서는 中共의 軍事的 支持를 必要로 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이미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蘇聯과 中共이 各己 北한을

自己의 影響圈內에 넣고 싶어하기 때문에 북한에 對한 兩大國의 制動力이 弱化될 可能性이 없지 않으며 相對的으로 北韓의 立場이 有利하게 強化된 局面도 없지 않다.

이 兩大國들이 北韓을 自己便에 끌어넣기 위한 競爭의 結果가 북한의 冒險主義를 直接, 間接으로 不可避하게 支持하게 되는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點에서 中共은 蘇聯보다 북한의 金日成을 支援해 줄 可能性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1975年 印支의 共產化에 鼓舞된 金日成이 北京을 訪問하여 對南戰爭에 必要한 軍事支援의 言約을 얻어 내려고 했으나 中共이 이에 同意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事實은 中共의 立場이 50年代의 북한을 돕기 위해 義勇軍까지 보낼 수 있었던 狀況과는 判異한 情勢下에 處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美·中共間의 關係改善, 對日外交關係의 發展, 對蘇對立의 深化 등으로 4強의 對韓政策에 根本的인 變化가 일어나지 않는 限 中共의 直接的인 軍事介入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中共이 休戰當事者會議의 受諾을 북한 당국에 종용할 餘地는 分明히 있다고 본다. 勿論 時期的으로 즉각 實現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지만 中共은 韓半島의 現狀 維持를 위해 駐韓美軍의 계속적 주둔을 希望하고 있고 또 키신저長官의 休戰當事者會議의 提議에 事前 合意했다는 點에서도 中共의 立場은 當분간 冒險的인 수는 없다고 展望된다.

VI. 北韓과 中·蘇 三角關係

北韓에 對한 두 共產 強大國의 影響力은 어떤 勢力보다도 크게 行使되어 왔고 現在에도 無視할 수 없게 作用하고 있음은 周知하는 事實이다.

北韓政權이 樹立되던 1948年부터 1950年代 初半까지 蘇聯이 北韓의 金日成 集團에 미쳤던 直接, 間接의 影響力은 거의 絶對的이었다. 特히 스탈린 體制의 性格上 北韓을 完全한 蘇聯의 傀儡로 만들려는 蘇聯의 政策은 여러 面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中에서도 金日成이 蘇聯軍 少佐로 入國하여 一躍 將軍으로 變身했고, 蘇聯의 脚本에 依한 꼭두각시 놀음을 했다는 事實과, 6.25 南侵의 武力挑發 亦是 蘇聯의 軍事的 支援과 保障에 依해 進行되었다고 하는 事實은 北韓이 그동안 蘇聯에 密着되었다는 것을 示唆하는 것이며 아울러 蘇聯의 絶對的 영향권에서 寄生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動亂에 中共軍이 介入하면서부터 北韓에 對한 中共의 影響力도 漸增하여 마침내 金日成에 對한 莫強한 發言權을 保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歴史的으로나 地政學的으로 北韓과 中共 間의 關係가 蘇聯에 못지 않게 緊密한 利害關係를 갖고 있다고 하는 事實에 비추어 將次 이 強大國들 間의 力学關係가 어떻게 變化하느냐에 따라 北韓에 對한 이들의 영향력 행사의 向方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두 共產巨人國 들이 北韓의 金 日成을 놓고 露骨的인 角逐戰을 벌인 바는 없으나 잠재적으로 北韓이 어느 영향권에 들어가느냐 하는 데에 민감한 利害關係를 갖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이것은 美國이나 日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958年부터 激化된 中·蘇의 理念紛爭은 北韓 뿐만 아니라 餘他 中小 共產諸國들에게 적지 않은 混亂과 不安을 주어, 소위 共產圈의 分裂과 分化를 深化시켜 왔는데, 이러한 共產陣營 内部의 分化現象에 따라 北韓의 對中共 및 對蘇關係는 一次的으로 等距離外交, 이른바 〃줄타기 〃식의 조심스러운 外交를 展開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한걸음 發展하여 從來의 親蘇路線에서 親中共路線으로 轉換을 하게 되었던 行蹟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러나 北韓의 이러한 立場이나 態度는 명확하게 兩者折一하는 政策을 追求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Case by Case에 依해 親蘇關係를 調整하고 있다. 問題는 北韓의 金 日成으로서는 그들의 對南赤化戰略의 實現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支援이나 言質을 얻는데 集中되고 있으리라는 點에는 疑心の 餘地가 없고, 당장에 必要的인 軍事, 經濟援助와 技術支援을 希求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強硬한 反蘇路線으로 一貫하던 中共의 毛 沢東 体制下에서는 北韓의 對蘇 行動半徑은 극히 制約된 바가 있었고, 心理的인 強迫感마저 주었던 것이 事實인데 毛 沢東의 死亡 以後 새로 登場한 華國 鋒体制가 取하려고 하는 蘇聯과의 關係改善의 움직임은 北韓에게 또 하나의 어려운 問題點을 던져 주고 있거니와,

또 다른 側面에서는 北韓으로 하여금 蘇聯에의 接近에 좋은 契機가 되는 利点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中·蘇關係는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美國의 카터政權이 出帆한 後에도 中·蘇關係에 劃期的인 變化가 없는 限 中·蘇의 兩國關係는 相當한 期間동안 制限된 協力關係와 對立關係가 維持된다고 展望할 수 있다.

中·蘇 간의 國境線 問題만 해도 根本적으로 이 問題의 解決은 期待할 수 없는 未決의 宿題로 남긴 채 이들 間의 力学關係는 複雜한 形態로 發展해 가리라고 볼 때, 평양-北京-모스크바 間의 三角關係는 流動的인 가운데 根本的인 變革은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도 이미 指摘한 바이지만 三角關係에서 北韓을 各己 自己 側에 놓고자 할 때 中·蘇가 北韓에 加할 수 있었던 制動力은 弱화될 것이지만 相對적으로 北韓의 發言權은 強化되는 局面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北韓의 猪突的인 모험주의는 우리의 警戒心を 誘發하는 相當한 理由가 되기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中共과 蘇聯의 力学關係가 相互 만만치않게 생각하는 狀況 下에서는 北韓에 對한 一方的인 영향력 행사가 不可能한 問題임으로 利害關係國 間의 現狀維持體制에 依한 現狀固定의 可能性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現在 北韓은 金 日成의 後繼者 問題를 둘러싼 政局의 不安에다 雪上加霜으로 無理한 南侵準備와 非同盟國外交工作등으로 莫大한

外債에 허덕이고 있으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經濟事情의 變化는 金 日成으로 하여금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行爲를 強要하고 있다. 이러한 結果로 나타난 部分的인 事件이 바로 北歐諸國에서 폭로된 麻藥密輸行脚이라 할 수 있다.

北方의 三角關係와 均衡問題를 考慮케 하는 서울-워싱턴-도오꼬오間的 南方 三角關係의 均衡은 韓半島의 現狀固定에 合意될 事項으로서의 性格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70年代에 들어서 中共의 防衛戰略의 方向을 살펴 볼 때 中共은 무거운 짐이 되고 위험 부담율이 높은 韓半島의 統一을 바라지 않을 것이며 武力에 의한 統一 企圖를 환영할 理도 없다.

韓國 統一에 對한 中共의 真意가 무엇이든 간에 相對的으로 安定된 한반도의 情勢가 노골적인 충돌을 위협하는 긴장 고조의 상태보다는 中共에 더 이익이 된다는 理由를, 첫째, 中共은 美國과 마찬가지로 美·中共 關係 改善에 상당한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다.

둘째, 中共은 日本의 強力한 經濟力과 韓國에 對한 日本의 영향력 증대 및 日本이 또다시 軍事大國이 될 수 있는 可能性 등에 관하여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美·日 關係가 強化되고 日本의 再武裝이 加速化될 것이다.

셋째, 만일 한반도를 非核地帶로 만들기 위한 국제 협정이 合意에 도달한다면 中共으로서도 그러한 非核地帶案이 당초 그들이

UN에서 呼訴한 '平和地帶' 設置案에 對한 反應으로 나온 것이라고 主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理由때문에 한반도의 軍事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4強이 參加하는 國際協定體制는 中共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點에서 국제협정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蘇聯의 立場은 中共과의 對立關係에 있기는 하나 한반도의 共產化 統一이 거기에 따르는 莫大한 負擔과 심각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받아들일 만큼 重要한 국가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북괴에 의한 푸에블로호 拉致事件이나 美 EC-121 偵察機 추격 事件 當時 소聯의 행동은 충돌 위험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 다는 모스크바 當局의 態度를 分明히 했다. 따라서 蘇聯은 한반도를 安定시켜 中共으로 하여금 북괴의 挑發行爲를 促求하거나 默認할 수 없도록 하는 國際協定體制에 찬성하는 편에 설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蘇聯이 한반도의 安定을 위해 국제 협정에 찬성하는 또 다른 理由는 만일 국제협정 體制가 마련되면 시베리아 開發計劃에 對한 日本의 대규모 投資를 원하는 蘇聯으로서 是 對日關係를 증진 시킬 분위기가 好轉됨으로써 蘇聯의 利益에 부합된다고 計算할 수 있다. 그러므로 蘇聯은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을 원치 않으며 이 보장을 위해 국제 협정을 지지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中共과 蘇聯의 立場이 모두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假說을 세울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북괴의 基本的 政策目標은 駐韓美軍의 撤収에 두고 자신의 행동 자유를 制限하는 國際的 裝置를 無力하게 한다는 그의 目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北韓이 現在의 軍事的인 緊張狀態를 緩和할 意思의 接近에 消極的이거나, 아니면 正面으로 反對하는 경우 北韓을 如何히 보다 安全한 國際體制에로 끌어 넣느냐 하는 可能性의 打診은 보다 注意깊은 觀察과 分析이 要求되는 問題로 생각한다.

하지만 北韓과의 協商에 있어서 가장 必須的인 要件은 북한보다 優越한 힘을 堅持함으로써 북한의 共產主義者들이 스스로 相對的인 弱點을 意識하게 하는 問題일 것이다.

다만 한반도에 있어서 平和定着의 一環으로 提議된 바 있는 美國의 休戰當事者會談案을 한국 休戰協定の 直接 當事者인 中共의 向背가 蘇聯에 優先해서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는 疑問의 餘地가 있을 수 없으나, 이러한 事態가 效果的으로 發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美·中共 間의 妥協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며, 이 두 強大國 間의 關係好轉과 合意가 큰 問題가 된다. 韓·美 間의 關係가 緊密하고, 最小限 安保問題에 있어서 利害를 같이 할 수 있는 立場에 있는 것처럼 북한과 中共 間에도 밀접한 상관 關係를 가질 수 있다면 當事者會談의 接近과 實現은 急進的으로 妥結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韓·美關係처럼 一辺倒的인 關係가 아니라는 점에서

問題가 있는 것이고 또 만약 북한이 休戰當事者會談을 受諾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條件이 붙는 回避戰術을 쓸 것이 뻔하기 때문에 美國의 戰略이나 構想을 단순히 受容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主體的인 立場에서 우리의 態勢를 가다듬어 가야 할 것이다.

VII. 結 論

지금 北韓은 20 餘億弗의 外債와 極度로 惡化된 經濟事情, 그리고 260 年만에 밀어닥친 苛酷한 旱魃로 말미암아 前例없는 어려운 試鍊을 겪고 있으며, 이에 雪上加霜格으로 金 日成의 後繼者 繼承問題로 内部的 不安이 加重되고 있다. 이 危機를 克服하려는 突破口로서 對南挑發의 冒險을 試圖할 可能性마저 없지 않다고 分析되고 있으나 韓國의 지속적인 經濟成長과 国力의 伸張, 그리고 總和体制의 強化는 北韓의 挑發에 對해 充分한 抑制力(deterrence)으로 作用할 수 있는 것이다. 韓國은 70 年代 「輸出中心의 經濟成長國의 標本」¹⁵⁾ 이 되고 있으며 國民的 總和에 바탕을 둔 透徹한 反共意識은 時間이 가면 갈수록 南北隔差를 크게 深化시켜 한반도에 있어서 北韓 共產주의의 死滅은 必然的인 事態發展으로 보여진다. 이런 까닭에 當分間은 北韓에 依해 한반도의 緊張과 不安이 造成되고 神經質的으로 各種의 挑發이 恣行될 可能性이 없지 않지만 如何한 挑發이 敢行되더라도 總和体制로 對應해 나간다면 能히 克服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現在의 休戰協定을 보다 安定性있는 平和保障体制로 補完해서 명실공히 「國際的 安全裝置」를 마련하므로써 北韓의 無謀한 挑發을 豫防할 必要는 있다고 본다.

註 15 : Sheldon W. Simon, 前掲書, p.78.

그러므로 美國이 提議한 休戰當事者會議을 實現시키기 위해서는 美·中共間의 積極的인 協力이 問題이겠고, 特히 北한의 後見勢力인 中共이 北한을 協商의 메이플로 誘導하는데 說得力있는 影響力이 行使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中·소間의 對立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北한의 立場을 有利하게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4者會談의 段階에서는 日本과 蘇聯을 積極 介入시키는 일은 考慮해 볼 問題라 생각한다.

다만, 非同盟國(第三世界)과 東歐圈에 보다 큰 影響力을 미치고 있는 蘇聯이 이들 國家들을 通해서 說得케 하는 于廻作戰도 效果的일 수 있으리라고 본다.

現在 北한의 非同盟國에의 依存度는 어느 때보다도 크게 考慮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들의 忠告와 說得은 北한에게 큰 壓力으로 作用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政府는 美·日과의 協力體制를 더욱 堅固하게 다져가는 한편 主体的으로 이 提議의 妥當性과 當爲性을 友邦國과 第3世界에 理解시켜 國際與論을 有利하게 喚起시킴은 勿論 그 支持度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北한과의 協商은 너무 性急하게 서둘 必要가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國際적으로 休戰當事者會議을 開催하도록 하는 努力도 必要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韓半島의 情勢變化, 다시 말하면 北한에 대해 韓國이 갖는 協商誘引條件을 完璧하게 構築해 가야하는 것이다.

아울러 美國政府에서도 對韓政策에 있어서 南北間의 均衡維持에 손실을 自招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積極的이고 能動的인 姿勢를 堅持해 주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過去의 經驗에 비추어 美軍의 韓國駐屯이 韓半島의 安定的 要因으로 作用¹⁶⁾ 했던 事實을 重視해야 할 것이다.

카터美大統領 當選者는 選舉遊說에서 駐韓美軍의 段階的 撤収를 내세워 論難을 惹起시켰던 일이 있으나 카터 民主黨 行政府가 正式으로 出帆한 以後에도 駐韓美軍의 撤収는 韓國과 日本, 그리고 中共과의 事前協議없이는 無謀하게 斷行될 수 없는 問題라고 생각된다.

駐韓美軍의 撤収問題와 關聯하여 美國朝野와 日本 등에서 敏感한 反應이 나오고 있는데, 日本의 미끼首相은 最近 韓半島에서의 軍事的 均衡이 급격히 變化하는 것은 東北亞의 平和와 安保에 利롭지 않다는 것이 日本人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主張한 바 있으며 小坂外相도 韓半島의 平和維持를 위한 이른바 <힘의 均衡>을 強調하면서 駐韓美軍의 撤収를 反對하고 南北對話를 再促求한 바 있다. 또한 New York Times 紙도 駐韓美軍의 問題에 性急한 措置를 取하지 말도록 促求한 바 있으며, 1975年 10月 23日부터 30日까지 韓國을 訪問한 韓國動亂參戰勇士 代表團長 머피 (John M. Murphy) 下院議員도 그가 所屬하고 있는 美下院議長 카알. 앨버트

註 16 : 趙在璠譯, 東아시아와 美國의 安保, 法文社, 1976.p. 232.

에게 提出한 報告書 가운데 「美國이 韓國에서 撤収하면 休戰을
개트리고 새로운 戰爭을 始作하겠다」¹⁷⁾ 고 金 日成 自身이 호언
장담했던 事實을 想起시키면서 美國의 적극적인 對韓政策을 強調했
다.

現속의 東北亞 情勢에 비추어 美國은 實質적으로 한반도에 介入
해야 할 것이며 南韓에 對한 防衛公約의 信憑性을 保證해야 한다.

萬若 美國이 이 公約을 拋棄한다면 韓半島內에서와 韓半島周邊의
有利한 情勢가 쉽게 逆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美國
이 그 公約을 준수하고 中共과 蘇聯과의 關係를 擴大 改善하는데
成功한다면 韓半島에서 의 安定된 平和속에 4強이 가지고 있는 利
益은 增加할 것이라고¹⁸⁾ 부루킹스研究所 首席研究員인 클러프
(Ralph N. Clough)는 指摘하고 있다.

이러한 流動적인 一連의 情勢下에서 韓國의 安保가 日本의 安保
에 緊要하고 이 地域의 安全保障이 같은 太平洋國家인 美國의
國家利益에 直結되고 있음을 行動으로 立証해 줄 必要가 있다고
본다. 韓國이 休戰協定의 當事國이 아니라는 理由 때문에 休戰當
事者會議에 參與하는 것을 拒否한다면 美國政府는 韓國에게 軍作戰
指揮權을 還元시키는 問題도 考慮해 보아야 할 것이다.

同時에 政府로서는 將次 具體化될 것으로 豫想되는 駐韓美軍의

註 17 : 金應詒, 前掲書, p.84.

註 18 : 趙在 詒, 前掲書, pp.227-228.

撤収에 對備해서 軍裝備 現代化에 拍車를 加해야 할 것임은 다시 말할 必要조차 없거니와 軍援體制도 美國一辺倒體制에서 좀더 多元 化하는 軍事協力體制로 構想해 볼 餘地가 있다고 본다.

結局 韓半島의 休戰當事者會議는 長期的인 眼目에서 北韓이 이 提議를 受諾할 수 있도록 國內外的 與件을 造成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方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關係當事國들의 理解와 協調를 提高해 가야 할 것이다. 모든 與件이 平和定着을 爲한 提議를 外面할 수 없게 成熟되면 아무리 硬直한 북한體制라 할지라도 不得已 進路修正이 不可避할 것으로 確信된다.

끝으로 韓國問題의 解決은 韓國人의 손에 依해서 自主的으로 妥結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韓半島問題를 解決하는 核心 問題이고 바로 關鍵이고 보면 한반도문제는 南北韓 當事者의 意思(willing) 如何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당국은 民族的 良心에서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爲한 協商에 나와야 할 것이며, 誠實한 姿勢로 平和的 統一의 실마리를 찾는데 眞實性을 보여주어야 할 줄 믿는다.

먼저 북한 당국은 膠着狀態에 빠져있는 南北對話를 하루속히 再開하여 韓半島의 平和問題를 協議해 줄 것을 거듭 促求한다.